

(다트머스 칼리지: Dartmouth College)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유일하게 입학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유일한 대학이 다트머스이다. 다트머스는 지난해 비해 72 명의 학생들을 더 뽑았다. 올해 총 22,416 명이 지원하여 2,252 명(10%)이 입학 허가 되어 지난해 9.4%로 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대학이 계획하고 있는 정원은 약 1,120 과 1,125 명 사이이고 대기자 명단은 약 1,700 명 정도이다.

올해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하자. 미국 50 개 주 모두에서 합격자들을 배출했고, 외국학생들은 9%로 남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출신들이 상당히 증가한 추세이다. 레가시(Legacy)와 운동 리쿠르트는 9% 그리고 가족 중 최초의 대학 진학 학생(First Generation)은 11%가 입학허가 되었다. 또한 소수민족 학생들은 48%로 아시안 미국인과 네이티브 미국인(Native American)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합격자들 중 학교 성적 상위 10%가 95% 이고 이중 40%가 학교 수석졸업자들이다. 이들의 평균 SAT1 성적은 CR 737, Math 741, Writing 741 로 총 평균 2209 점이었다.

다트머스 입학처장인 라스카리스(Laskaris)에 의하면 " 우리는 교 내외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클럽활동을 다트머스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올해 뽑힌 학생들은 우수한 학업 성취도, 열정적인 교외활동, 공동체와 긴밀한 유대관계, 애교심이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뽑았다. 그리고 재정보조, 기후, 조그만 타운에서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는 요소들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별했다."라고 언급하였다.

다트머스는 다른 아이비리그와 달리 학생들이 대학 1 학년과 4 학년 때를 제외하고 2,3 학년 때 1 년을 학교 밖에서 일정한 경험을 강조하는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독립심과 도전정신이 강한 학생이며 학교가 산속에 위치한 관계로 학교 공동체 생활에 공헌과 즐길 줄 아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이다. 올해 학생들 입학률이 높다고 입학이 쉬운 학교는 절대 아니다. 올해 입학률로만 볼 때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유펜, 그리고 코넬순으로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로 널리 알려진 대학이다.

매년 학교와 주변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반영되는 것 중 하나가 대학 입학 조건들이다. 기본적인 틀과 입학 서류상의 조건과 절차들은 잘 바뀌지 않지만 학생선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다. 올해 역시 소수민족 지원자들의 증가와 지역적인 요소 배분에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였다. 미래의 지도자들도 고려하지만 대학이 우수한 학생 유치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아이비리그에서 선택된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성적, 그리고 강한 리더십이 있기에 이곳 출신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지역, 나라에 되돌아 가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입학 담당자들이 심사 숙고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다.

다트머스 역시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을 입학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고 한다. 학교 성적 상위 10%, 리더십, 도전적이면서 진취적이고, 주변공동체에 쉽게 적응하며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입학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올해 브라운의 입학률이 학교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총 28,919 명이 지원하여 2,649 명이 입학 허가되어 9.2%로 나타났다. 지난해 28,742 명이 지원해 9.6%의 학생들이 입학허가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0.4%가 감소한 수치이다. 언뜻 보기에는 적은 수치이지만 학생수로 보면 꽤 큰 수치이다. 이는 지원자수 증가와 더불어 낮은 입학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쟁이 무척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45%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주로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라틴계 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주된 인종이고, 17.5%가 일 세대 지원자(First Generation)로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입학 수혜를 받은 그룹이다. 미국 내 50 개 주 모두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고, 이중 캘리포니아, 뉴욕, 메사추세츠, 뉴저지, 그리고 텍사스 주 순서로 입학자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총 83 개 국가에서 입학 허가자들을 배출했고, 이는 지난해 비해 3 개 국가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중 중국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나다, 인도, 한국, 그리고 영국 순으로 입학 허가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 약 58%가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컴퓨터,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질적인 직업들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흥미와는 별개로 대학을 가기 위한 기계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예를 들면, 학교 디베이트, 리더십, 섬머, 리서치, 인턴십 등을 참여하여 대학에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한다는 점이 아쉽다. 다시 말해 스펙 쌓기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입학에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브라운을 포함한 거의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을 선호하면서도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학생들을 선호한다. 단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형식적으로 스펙만 쌓는 것은 결코 입학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 교수들과 리서치하며 논문에 이름이 실리고 있다. 사실 우수한 과학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 논문에 이름만 올리면 좋은 대학 입학에 유리할거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사실 이런 점은 브라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브라운은 공개교육과정(Open Curriculum)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와 연구를 할 수 있게 짜인 대학이다. 한 분야의 깊은 관심도 입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브라운은 여러 분야의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스펙을 위한 부정행위는 삼가야 한다. 브라운은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리서치를 제공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시험 부정행위, 가짜 인턴십과 리서치, 가짜 봉사활동 등으로 많은 미국 대학들이 한국 지원자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동시에 학교에서의 활동과 섬머 활동을 동시에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통 원서에서도 3년 전부터 교외활동란에 학교와 섬머에서의 활동을 표시하게 되어있어 균형 잡힌 활동인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칼리지 카운셀러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 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추세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아는 지인의 자제가 올해 하버드에 지원했다. 그는 많은 음악적인 경험을 했고 교외활동란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 했다. 그러나 하버드에 음악 관련 CD 를 보내지 않아, 하버드에서 이상하게 생각해 학교 칼리지 카운셀러들을 통해 활동을 확인 했고 CD 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아 급하게 CD 를 보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우린 이런 점들을 눈 여겨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로서,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전시,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 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